

콘텐츠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접권’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저작권재산권, 저작권접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권접권(neighboring rights)’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작권접권’은 실연자(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등으로 표현하는 사람),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이다. 어떤 가요를 예로 들면, 작사·작곡가는 저작자에 해당하고 그 가요를 직접 부른 가수는 실연자, 해당 앨범을 제작한 사람은 음반제작자, 가요를 실연하는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창작자(=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위 예시에서 ‘가요’)을 해석하거나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위 실연자 등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권접권자인 ‘실연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연자는 인격권으로서 저작권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6조, 제67조). 그러므로 어떤 가요를 특정 가수가 부른 녹음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녹음본에 관해 가장자를 다른 가수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고, 편집등으로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

또한 실연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방송되는 실연 제외)’, ‘방송권’, ‘전송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갖는다(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다만,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따로 인격권을 갖지는 않으나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송사업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이처럼 저작권접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업계의 종사자로서는 먼저 저작권접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러한 저작권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 자문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토yota 품질조작 논란... 현대차그룹도 되새겨야



기지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탈수록 가치를 알 수 있고 탈수록 탐나는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위인 토요타를 비롯해 일본 완성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다.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품질로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차량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차는 하이브리드차(HEV) 분야에서도 오랜기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남다른 자부심도 있다.

그러나 토요타의 이같은 명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이 지난 6월 3일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세계 소비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점이다. 아키오 회장은 올해 초에도 엔진 성능 인증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으며 지난 2010년에는 가속페달 결합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로 아키오 회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토요타가 본사 차원에서 인증 조작을 저지른 만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만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본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1위 수성에 대한 조급함과 로 토요타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토요타 사태가 일본차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품질을 무기로 세

계를 이끈 일본차가 흔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선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글로벌 3위로 급부상한 현대차그룹이다. 자동차 시장은 100여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에서 빠르게 친환경차로 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신기술을 앞다퉈 내놓으며 기술력 뽐내기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더이상 팔로워가 아닌 마켓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신차 연구 개발과 출시 주기 등에서 ‘빨리빨리’가 느껴진다. 한순간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수 있다. 차량의 안전 문제는 속일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6월 10일 (음 5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 48년생 긴장하지 말고 타협과 양보로 대비. 6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72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을 실감. 84년생 공격을 자랑하면 오히려 비난이 따른다.



37년생 눈앞의 실속을 행기다 보면 이익을 놓친다. 49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대화에 주의. 61년생 가족이라도 돈 문제를 계산해보아야. 73년생 과격하게 남의 허물을 지적하지 마라. 85년생 조심성은 어느 사람에게나 불가결의 조건.



3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이익. 50년생 배우자의 고집으로 난감한 하루를 보낸다. 62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나가라. 74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 86년생 재능이 있었지만 주장이 강해 재능이 숨겨져 버린다.



39년생 닭피 깨뜨려야 겨레가 잘 이루어진다. 51년생 운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으니 기다려보라. 63년생 소금이 필요해도 너무 짜지 않게 조화를. 75년생 직장에서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 87년생 돈 자랑하다 쓰지 않으면 발목 잡힌다.



4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 52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자중. 6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술술 풀린다. 76년생 비할 언덕이 절실할 필요하다. 88년생 발에 김을 매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다 움직이자.



4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을 해보자. 53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65년생 오전부터 음주자 웬 말이던가. 77년생 다음의 비상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89년생 색은 나무로 아찌 조각 작품이 나오겠는가.



42년생 타인을 지나치게 비난하다가 위험에 직면. 54년생 합격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66년생 도박성 유혹이 있는 날. 78년생 먼저 핀 꽃이 먼저 진다. 90년생 사람은 바탕이 있어야 하니 승진 공부는 계속해야만.



43년생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 55년생 인생은 마라톤이니 힘내보자. 67년생 결단력으로 자신 있게 도전. 79년생 크기(虎) 혼란하다 마음 수양. 91년생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적선은 깨진 독에 물 붓기.



44년생 스스로 돕는 정신이 있을 때 남도 돕는다. 56년생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방법은 없다. 68년생 손품에 뒀던 배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0년생 꾸밈없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던가. 92년생 교육이란 정성과 노력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45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57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기다려라. 69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1년생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치. 93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46년생 처음엔 서운한듯하여도 끝없는 부모 마음을 자식이 알까. 58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 70년생 친구의 가정사에 휘말리지 마라. 82년생 누구나 장단점은 있으니 본인 장점을 찾아서 연마하도록. 94년생 화목을 우선으로 생각.



47년생 내리막길은 가장 생활 때 조짐이 나타나니 자식을 살펴볼 것. 59년생 도중에 지지치 말고 이치를 다시 터득해보자. 71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83년생 가정불화는 참는 것이 최선의 길. 95년생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 했으니.



김상회의 四季 풍경소리의 단팔죽

회의하거나 공부를 할 때 맥거리가 빠질 수 없다. 필자의 사찰 월광사 풍경소리 6월 법회 때는 미역국을 끓여서 점심 공양을 하고 디저트로 단팔죽을 시식했다. 어릴 적에 엄마가 팔을 삶고 있는 모습을 보면 코끝에서 포근하고 맛있는 냄새가 감돌았다. 팔죽을 만들려면 넉넉히 물을 붓고 팔알이 무르도록 삶는다. 다 삶으면 체로 걸러서 껌질을 제거하고 다음엔 쌀을 끓이고 팔알을 넣어 다시 끓인다. 이때쯤 새알심을 같이 넣고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단팔죽은 쌀을 넣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간다.

가마솥에 삶고 끓여야 하는 예전보다 만들기는 쉬워졌지만 정성으로 맛이 일품이다. 팔죽은 동지에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고려시대 기록에 동지팔죽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도 남아있고 조리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적혀있다. 역사가 오랜 팔죽은 여름에도 핫한 음식이다. 젊은 세대가 즐겨 찾으면서 디저트 카페에 가면 팔빙수 단팔죽이 인기상품이다. 카페문화가 번지면서 디저트도 하나의 문화가 됐다. 특히 젊은 세대는 디저트를 먹으며 피곤한 오후의 여유를 즐긴다.

단팔죽을 한 숟가락 떠놓으면 부드러움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살짝 씹으면 이번엔 달콤한 맛이 미각을 만족시켜준다. 거기에서 비타민 단백질 섬유질 칼륨이 이르기까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도 가득하다. 무엇하나 빠지지 않으니 오늘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다면 단팔죽을 찾아 그곳하게 한 그릇을 먹어보자. 입안의 행복함으로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능률이 높아질 것이다. 머리를 쓰고 검토하는 회의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며 기분은 산뜻하게 살아나니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1		6				
		2	7		3			
9				7				
3			8					5
		5						1
	4	5						
		8	9	2				
		2		1	8			

		1		5	3	4		
	2				1	5	6	
								9
1					9	3		
			8		5			
		6	3					7
7								
	9	5	6					2
		8	5	4		6		

2	8	9	1	5	7	8	1	2
1	2	7	8	9	5	6	7	8
7	8	2	6	1	8	9	2	1
9	7	8	2	6	1	8	9	2
1	2	7	8	9	5	6	7	8
7	8	2	6	1	8	9	2	1
9	7	8	2	6	1	8	9	2
1	2	7	8	9	5	6	7	8
7	8	2	6	1	8	9	2	1
9	7	8	2	6	1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4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